

TOURISM SCOPE

E-book

Volume 26
2013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1개국 71개 도시 정부와 36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 · 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CULTURE & TRAVEL**
군침 도는 개성을 맛보다, 인천
Come and Enjoy
the Untapped Charm, Incheon
- 08 SPECIAL**
짧고 굵게 둘러보는 오사카, 교토, 고베
Osaka, Kyoto and Kobe for
a Short but Full Trip
- 14 CITY THEME TOUR**
타이완 두 부족 이야기
A Fascinating Story of
Two Tribes in Taiwan
- 18 CITY THEME TOUR**
안 가면 후회, 모던 트렌드 방콕
Modern Trendy Bangkok Spots
- 22 TREND & ANALYSIS**
도심에서 즐기는 진정한 휴양
Real Vacation in the City
- 26 FESTIVAL CALENDAR**
- 28 TPO NEWS**
- 30 TPO INTERVIEW**
주환명 TPO 사무국 사무총장



군침 도는 개성을 맛보다

찾아라! 맛있는 인천

한반도 방방곡곡 사시사철 입맛 당기는 먹거리가 산재하지만,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천만의 독특한 음식이 있다. 최초, 원조를 외치는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이 대표주자. 뒤를 이어 닭강정과 찰면, 삼치구이와 밴댕이회, 물텀병(아귀), 꽃게, 화평동 냉면이 줄을 잇는다. 130년 전 개항기 근대 문물 유입지인 인천시 중구의 오래된 재래시장과 골목 어귀에서 색다르고 다양한 요리를 찾았다.





대한민국 짜장면의 원조

북성동 원조 짜장면 거리

하루에 700만 그릇이 팔린다는 국민 음식 짜장면. 우리나라 짜장면의 역사는 1883년 인천 개항과 더불어 시작했다. 중국 산둥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삶은 국수에 된장과 채소를 얹어 비벼 먹던 음식이 광복 후 춘장과 캐러멜이 첨가되면서 현재의 짜장면으로 발전했다. 개항 이후 청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 열강이 첫발을 내디뎠다. '청관거리'라 불리던 이곳에 1905년 중국음식점 공화춘이 생기면서 차이나타운은 유례없는 호황을 이뤘다. 그러나 1967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조치' 실행으로 장사하기 힘들어진 중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쇠락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근현대문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차이나타운 내 짜장면 거리에는 30여 개에 달하는 중국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짜장면과 짬뽕 등 식사 외에도 특색 있는 요리 메뉴, 양꼬치, 월병, 용기병, 공갈빵 같은 간식에 이르기까지 없는 메뉴가 없다.

주소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9번길 12(선린동) 전화 032-810-2851 홈페이지 www.ichinatown.or.kr



춘장을 넣어 볶다 물과 전분을 넣어 짬맛을 연하게 풀어주는 우리나라 짜장면은 양파, 양배추, 감자, 고기를 넣어 전체적으로 단맛이 난다. 차이나타운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은 **풍미(豊美)**. 담백한 면발과 기름기 적은 소스가 특징이다. 녹색색의 아치형 외관 덕분에 기념사진 배경으로 곧잘 등장한다.

전화 032-772-2680 가격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삼선짜장 8000원



짜장면



월병

추석 때 달 모양을 본뜬 월병을 즐겨 먹는 중국. 월병을 파는 곳은 많으나 중국 제과점 '담(譚)'을 방문하면 팔보(견과류), 녹차, 팥, 흑임자, 커피, 계란, 꿀, 고구마, 밤, 파인애플, 망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을 넣은 월병 외에도 평리수, 포춘쿠키 등을 살 수 있다.

전화 032-773-8800, 8807 가격 월병 2500~3000원 홈페이지 www.yuebing.co.kr

고구마, 단호박, 고기, 팥을 넣고 화덕에 구워낸 향아리 만두로 용기병이라 한다. **십리향(十里香)**은 입구에 늘어선 긴 줄 때문에 굳이 찾지 않아도 눈에 금방 보이는 가게. 인도 탄두리 치킨을 연상시키는 화덕 벽에 매달린 채 구워지는 만두는 막 꺼냈을 때가 가장 맛있다.

전화 032-762-5888 가격 팔 · 고구마 · 단호박 1500원, 고기 2000원



용기병



공갈빵

속이 텅 비어서 공갈빵이라 불리는 중국 고유 빵. 바삭한 피와 달콤한 속이 특징으로 검정깨, 코코넛 맛도 판매된다.

가격 1개 1000원, 왕공갈빵 2000원, 1봉지 2000~3000원, 미니 공갈빵 5000원

짜장면 테마 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짜장면의 탄생과 역사,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짜장면박물관은 2012년 개관한 곳으로 옛 공화춘(共和春)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사용하고 있다. 공화춘은 청국 조계지에 음식점과 호텔의 혼합형 숙박업소였던 산동 회관이 전신으로 1911년 중화민국의 수립을 기념해 공화춘으로 개명했다. 1983년 폐업 이후 후손들은 모두 타이완으로 돌아가고,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공화춘'으로 영업 중인 곳은 단지 이름만 계승한 곳. 2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1930년대 공화춘의 점적실과 1960년대 주방 모습 등 실제 모습에 가까운 모형이 눈길을 끈다. 영상, 유물, 전시자료를 통해 짜장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주소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38-1번지 전화 032-773-9812~3 운영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설날 · 추석 연휴 휴관)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홈페이지 www.icjg.go.kr





오동동 물오른 봄철 삼치

동인천 삼치거리

봄 생선이라 해서 춘어(春魚)라 불리는 삼치는 고등어와 함께 대표적인 등 푸른 생선이다. 영양가는 높지만 지방이 적어 칼로리는 고등어 절반 수준인데, 산란기인 봄철에 맛이 가장 좋다. 동인천역 인근 골목에는 30여 곳에 이르던 삼치구이집이 성황을 이루었다. 4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7곳이 삼치구이집의 명맥을 지키는데, 가게마다 특색 있는 간판과 벽화는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북비는 골목으로 만들었다. 막걸리에 담가 숙성시킨 큼직한 삼치를 청양고추 넣은 칼칼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맛은 이곳만의 별미. 소금구이 말고도 카레, 치즈양념 삼치구이도 있다.

찾아가는 법 동인천역 대한서림을 끼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삼치일번가가 보이면 그 골목으로 우회전. **인천질 전화** 032-773-8384 **운영시간** 11:00~02:00 **가격** 반반 삼치 7500원, 인천집 코스 1만 9000원, 뷔스류 6000~1만 1000원, 구이류 8000~1만 3000원, 탕류 5000~2만 원



차이나타운 속 일본

카페 팻알 Cafe Pot-R

19세기 하역회사 사무실 겸 주택이던 적산가옥(敵産家屋)이 100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2년 8월 다시 문을 열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지정문화재인 근대건축물을 개인이 매입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관광문화자원으로 재활용한 첫 사례기 때문. 테이블로 이뤄진 1층과 달리 2~3층은 다다미방으로 단체를 위한 예약을 받고 있다. 100% 국산 팻을 사용한 단팃죽과 팻빙수는 물론 수제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포함된 세트가 이곳의 인기 메뉴다. 옛 인천 개항장 사진과

그림을 이용한 레트로한 업서와 책자도 판매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96-2 **전화** 032-777-8686 **운영시간** 11:00~21:00(매일 첫째, 셋째 월요일 휴무) **가격** 음료 4000~6000원, 단팃죽·팻빙수 6000원, 세트메뉴(음료+카스텔라 1조각) 4000~5000원, 수제 나가사키 카스텔라 2000원(1조각) / 1만 4000원(17개) **홈페이지** www.pot-R.com



이야기가 있는 카페 히스토리 History

4년 전 흥예문 인근에 문을 연 히스토리 역시 적산가옥을 매입해 리노베이션한 카페다. 2층만 카페로 사용하는데, 팻알에 비해 일본식 원형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아늑한 다락방 분위기가 마치 친구네 집에 놀러온 듯 편안함과 친근함을 준다.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동티모르산 커피콩만 사용하는 카페 메뉴 외에도 수제 요거트와 샌드위치, 쿠키 등이 준비된다. 개항 초기 인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책자가 전시돼 있으며, 카페에 전시된 아기가기하도 예 소품과 직접 만든 책(수첩류)을 판매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송학동 2가 1~3번지 2층 **전화** 032-567-9255 **운영시간** 13:00~22:00 **가격** 아메리카노 4000원, 에스프레소 5000원, 라테류 5000~6000원, 드립커피 6000원, 차 5000원, 팻빙수·단팃죽 6000원, 세트메뉴(아메리카노+샌드위치·조각케이크·쿠키) 5000~7000원





전통시장 가는 날 신포국제시장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 시장인 신포국제시장은 19세기 말 이곳에 자리 잡은 중국 농민들이 상업적으로 채소를 재배해 파는 '푸성귀전'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개항과 광복을 거치며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크게 두 갈래 골목을 중심으로 시장은 기존 점포들과 수선골목, 등대공원·푸성귀장 등의 근대유적, 조각공원 등의 문화공간으로 나뉜다. 시장에서 반드시 맛봐야 하는 음식은 닭강정과 오색만두 그리고 쫄면. '신포'라는 지역 이름이자 브랜드를 단 대표 먹거리다.

찾아가는 법 동인천역 지하상가 27번 출구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동 7번지 일원



닭강정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과 시간이 지나도 바삭한 맛을 유지하는 물엿으로 만든 소스가 특징인 신포시장의 명물. 시장 내에는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게가 여럿인데 시장 초입에 위치한 **신포닭강정**이 원조다.

전화 032-762-5800 운영시간 09:30~21:30(매월 둘째 일요일, 넷째 주 월요일 휴무) 가격 닭강정· 프라이드 1만 1000원(중), 1만 6000원(대) 홈페이지 www.sinpo.co.kr

1970년대 초 인천에 위치한 냉면공장에서 면발을 뽑던 사출기의 구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나온 굵고 쫄깃한 면발에 고추장 양념, 오이, 콩나물을 넣고 비벼 먹던 음식이 쫄면. **신포우리만두** 본점에 가면 탕글하면서 통통한 면발의 쫄면과 얇은 피의 만두를 함께 맛볼 수 있다.

전화 032-772-4958 가격 만두류 4000~6500원, 쫄면 5000원, 면류 5000~6000원, 밥류 5500~6000원 홈페이지 www.sinpomando.co.kr



쫄면



<드림하이> 속 기린에고가 이곳!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해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19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매입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창작스튜디오, 이카이프,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 규모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비평·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여념이 없다.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전 <미디어+놀이터>가 진행되고, 5월 26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4기 입주예술가 39인의 프리뷰전인 <2013 플랫폼 액세스>가 A, B, H동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재물량로 218번길 3 전화 032-760-1000 전시 운영시간 일~목요일 10:00~18:00, 금~토요일 10:00~20:00 홈페이지 www.inartplatform.kr



짧고 굵게 둘러보는 오사카 · 교토 · 고베

三日三色 일본 여행

명랑한 상업 도시 오사카와 예스러운 교토, 아기자기한 맛이 가득한 고베까지. 3일을 쪼개 일본의 전혀 다른 3가지 매력을 만났다. 욕심 많은 여행자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3일 3색 간사이 여행 루트.



大阪

쇼핑 천국 오사카

한류전철 기점인 우메다역 주변에는 오사카의 트렌드를 책임지는 화려한 쇼핑몰들이 늘어서 있다. 네모반듯한 회색 외관만 보고 '쇼핑몰이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면 서운하다. 쇼핑몰 콘셉트에 따라 스타일과 품목이 전혀 달라 건물 옮겨 다니며 아이쇼핑 즐기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류백화점부터 빙글빙글 돌아가는 관람차가 눈에 띄는 햅 파이프까지. 상업 도시 오사카에서 쇼핑의 매력에 빠져보자.



10:00 스타일을 아는 남자라면 한큐 맨스 오사카 阪急MEN'S OSAKA

남자만을 위한 백화점이라는 말에 뻘뻘 남성복 매장을 떠올렸다. 막상 둘러보니 트렌드에 관심 많은 남자라면 지갑을 열지 않고 못 배기게 할 만한 아이템이 수두룩하다.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하나 뿐인 남성만을 위한 루이비통 매장,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고급 구두가 진열된 신발 코너, 더 로비(The Lobby)·모노클 숍(Monocle Shop)·가라지(Garage) 등 유니크한 편집숍이 가득하다.

주소 大阪府大阪市北区角田町7-10 전화 06-6361-1381 운영시간 월~토요일 11:00~21:00, 일·공휴일 10:00~20:00 홈페이지 www.hankyu-dept.co.jp/mens

11:30 골라 먹는 재미 올림피아 올림피아

호텔 뉴 한큐 오사카 지하에 위치한 뷔페. 일식과 중식, 양식 등 110가지 요리를 무제한 맛볼 수 있다. 중식과 양식도 기본 이상이지만, 특히 일식은 이곳의 하이라이트. 스키와 소고기 스테이크, 메밀과 튀김 등이 정갈하고 먹음직스럽게 준비돼 마치 정통 일식집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깔끔한 디저트 코너와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연출 퍼포먼스도 인기다.

주소 大阪府大阪市北区芝田1-1-35地下1階 전화 06-6372-5240 운영시간 월~금요일 11:30, 13:30, 17:30, 19:30(시간제한 100분)/토·일요일 11:30, 13:30, 15:30, 17:30, 19:30(시간제한 90분) 가격 점심 성인 3600엔, 청소년 1900엔 / 저녁 성인 4600엔, 청소년 2500엔 홈페이지 www.hankyu-hotel.com/hotel/osakash



14:30 오사카 쇼핑의 자부심 한큐백화점 阪急うめだ本店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오사카의 쇼핑 대명사. 지난해 11월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화사한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익숙한 브랜드뿐 아니라 인터리어 소품이나 디자이너 의류 등 일본만의 고유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무미건조하게 품목별로 층을 구분하는 대신 개성 있는 콘셉트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 러블리한 콘셉트로 꾸민 4층 화장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 만큼 예쁘다.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가장 힘을 쏟은 공간은 9층 이벤트 홀과 지하 1층 식품매장. 특히 문슈슈도 자마를(堂島-U) 등 예쁘고 맛도 좋은 디저트로 소문이 자자한 식품매장은 백화점 오픈 시간 전부터 손님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주소 大阪市北区角田町8-7 전화 06-6361-1381 운영시간 일~목요일 10:00~20:00, 금·토요일 10:00~21:00 홈페이지 www.hankyu-dept.co.jp

18:30 관람차에서 보는 야경 햅 파이프 HEP FIVE

누 차야미치가 주로 로컬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 햅 파이프는 익숙한 캐주얼 브랜드를 고루 만날 수 있는 쇼핑몰이다. 층마다 매장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어 쇼핑하기도 편리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새빨간 관람차다. 멀리서도 단박에 눈에 띄는 관람차에 오르면 오사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15분. 쇼핑으로 지친 다리의 피로도 풀면서 눈도 호강하는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소 大阪市北区角田町5-15 전화 06-6313-0501 운영시간 쇼핑몰 11:00~21:00, 음식점·오락시설 11:00~23:00 홈페이지 www.hepfive.jp



京都

오래된 수도 교토

일본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를 만끽하기엔 교토만한 도시가 없다. 오래전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곳곳에는 오래된 신사와 절, 일본 전통 목조건물과 고즈넉한 산책길이 가득하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느릿한 걸음으로 자연과 전통에 둘러싸인 도시 곳곳을 누비며 여유를 찾아보자.

10:30 치유의 시간 치쿠린 竹林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치쿠린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대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산책로. 덴류지에서 노노미야신사를 거쳐 도롯코 열차역을 잇는 숲길인데, 푸른 대나무 숲과 그 사이로 비치는 햇빛,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귀에 담으며 좁은 산책로를 느긋하게 걷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한큐 아라시야마역에서 도보 10분



10:00

풍경이 있는 다리 도게쓰교 渡月橋

아라시야마역에서 덴류지를 향해 걷다보면 도게쓰교를 건너게 된다. 목조로 지어진 154m 길이의 다리인데, 오랜 역사와 규모 덕분에 아라시야마 지역의 상징으로 손꼽힌다. 다리 위에 올라서면 교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아라시야마 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1:00 사랑을 이뤄주세요 노노미야신사 野宮神社

대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아담한 신사. 인연을 맺어 준다는 소문 덕분에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신사의 명물은 소망을 이뤄주는 돌 오카메이시(お亀石). 정성껏 문지르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니 속는 셈치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주소 京都府京都市右京区嵯峨野々宮町1 전 화 075-871-1372 운영시간 09:00~17: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nonomiya.com



11:40 일식의 품격 아라시야마 벤케이 嵐山弁慶

도게쓰교에서 아라시야마 산을 향해 강을 따라가다보면 아담한 정원을 갖춘 일본식 전통 가옥을 만날 수 있다. 벤케이 료칸은 노천탕과 다다미방, 정통 일식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일본 숙박업소. 객실 10개의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급 료칸을 경험해보고 싶지만 여유롭게 머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식사만 즐기는 방법도 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동양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제철 식재료를 공들여 준비한 일식 정찬을 맛볼 수 있다. 저녁 식사를 한 손님에 한해 840엔을 추가하면 노천탕도 이용할 수 있다.

주소 京都府京都市右京区嵯峨天龍寺芒 / 馬場町34番地 전화 075-872-3355 요급 식사 점심 3465엔, 저녁 5775엔부터 / 숙박 2만 4000엔부터 홈페이지 www.benkei.biz





15:30 전통 있는 골목 산넨자카·니넨자카

三年坂二年坂

교토에서 옛 수도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길. 산넨자카는 원래 순산을 기원하는 신사로 향하는 참배로다. 좁은 언덕길을 따라 전통 목조 가옥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길이 워낙 아기자기해 마치 오래전 일본을 재현한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익숙한 기념품 가게 외에도 교토 특산품으로 명성 있는 전통 상점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특별한 쇼핑 즐기기도 그만이다.



17:30 달콤한 사탕 가게 기온 코이시 祇園小石

70년 동안 3대에 이어 일본 전통 방식으로 사탕을 만들어온 가게. 고온으로 가열한 뒤 단시간에 냉각해 만들어지는 교토 사탕은 표면이 매끈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교토 녹차와 매실, 꿀 등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품격 덕분에 교토의 수많은 백화점에서 리브콜을 받고 있다. 사탕뿐 아니라 과자 종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2층 카페에서는 가게에서 직접 개발한 과자로 만든 파르페도 맛볼 수 있다.

주소 京都府京都市東山区祇園町北側286-2 전화 075-531-0331 운영시간 10:30~19:30 가격 전통사탕 1봉지 367엔부터, 녹차 파르페 1050엔 홈페이지 www.g-koisi.com



13:00 그림 같은 정원 덴류지 덴류지

아라시야마 지역에서 인기 많은 사찰인 덴류지의 관광 포인트는 소겐치 정원이다. 1343년 무소국사가 만든 당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원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할 만큼 훌륭한 풍경을 자랑한다. 꽃이 물결을 이루는 연못과 이끼로 뒤덮인 정원, 물이 졸졸 흐르는 산책로를 제대로 즐기려면 소겐치 주위로 난 길을 따라 언덕으로 오르는 것이 좋다. 사찰에서 바라보는 정원에 예쁘지만, 한적한 분위기에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주소 京都府京都市右京区嵯峨天龍寺芒ノ馬場町68 전화 075-881-1235 운영시간 08:30~17:30 입장료 600엔(정원만 관람하면 500엔, 법당 관람료 별도 500엔) 홈페이지 www.tenryuji.com



13:50 예뻐지는 찻집 요지야 카페 요-じや카페

기름종이로 유명한 교토 코스메틱 브랜드 요지야가 만든 카페. 교토에만 3곳이 있는데, 가게마다 제공되는 메뉴와 콘셉트가 조금씩 다르다. 아라시야마 점은 뒤쪽에 작은 일본식 정원을 갖춘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 트레이드마크인 동양여자 얼굴이 새겨진 카푸치노 커피와 바로 옆에 자리한 대나무 숲을 상징하는 치쿠린 롤이 대표 메뉴다. 카페 옆에는 요지야 제품을 고르게 갖춘 코스메틱 샵이 들어서 있다.

주소 京都府京都市右京区嵯峨天龍寺町2-13 전화 075-865-2213 운영시간 10:00~18:00 가격 카푸치노 600엔, 치쿠린 롤 650엔, 녹차라테 650엔 홈페이지 www.yojiya.co.jp

16:30 교토의 간판 기요미즈데라 清水寺

오밀조밀 자리 잡은 일본 전통 가옥 상점가를 지나 언덕길 끝에 닿으면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기요미즈데라에 닿게 된다. 다른 사찰과 달리 엄격한 벽이 없어 예로부터 서민들이 즐겨 찾았는데, 개방적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적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계절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펼쳐내지만, 봄꽃이 가득 피는 봄 전경은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다. 분당 무대에서는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워낙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큰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말로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물을 마시면 건강과 학업·연애가 잘 풀린다는 오토와(おとろ) 폭포와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신사(地主神社)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소 京都府京都市東山区清水 1 丁目 전화 075-551-1234 운영시간 06:00~18:00 입장료 300엔 홈페이지 www.kiyomizudera.or.jp



神戸

맛과 멋의 고베

항구도시 고베는 번쩍이는 오사카, 고즈넉한 교토와는 또 다른 아기자기함을 품은 도시다. 오래전부터 외국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해온 덕분에 도시 곳곳에 유럽에서나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소소한 재미를 숨기고 있다. 유럽풍 집들이 오밀조밀 늘어서 골목길, 달달한 빵과 케이크, 시원한 바다가 있는 곳. 고베의 맛과 멋을 만나는 하루 일정.

10:30 유럽을 만나는 언덕길 기타노이진칸 北野異人館
 한큐 산노미야역에서 산을 향해 약 15분 걷다보면 유럽풍 건물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 마치 유럽의 카페 거리를 연상케 하는 언덕길은 기타노이진칸의 시작점. 이진칸은 외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1858년 고베항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 주인의 국적과 특성에 따라 개성 있는 건축양식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01

02 03



도시 한바퀴 시티 루프 버스 City Loop Bus

고베에는 도시 주요 관광지를 일뜰하게 들르는 시티 루프 버스가 있다. 빈티지한 녹색 외관이 눈에 띄는 버스인데, 1일권을 끊으면 하루 종일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내렸다다 탭 수 있어 편리하다. 언덕 많은 고베에서 걸자니 지치고 대중교통은 복잡하게만 느껴질 때 이보다 더 유용할 수 없다.

1일 승차권 가격 성인 650엔, 12세 이상 250엔, 12세 미만 130엔



대표 이진칸 열전

01 모에기노야카타 萌黄の館 파스텔 톤 녹색 외관이 눈에 띄는 건물. 1903년 미국 총영사인 헨터 샤프가 살던 집인데, 아라베스크풍 무늬가 새겨진 계단과 중후한 벽난로 등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다. 입장료 300엔

02 우로코노이에 うろこの家 고베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이진칸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외벽을 장식한 천연석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함께 고베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입장료 1000엔

03 가자미도리노야카타 風見鶏の館 지붕 위에 놓인 닭 모양 풍향계 덕분에 '풍향계의 집'으로 불리는 곳. 독일 무역상인 G.토머스가 살던 곳으로, 독일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다. 중세 성을 연상케 하는 식당 인테리어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하이라이트. 입장료 300엔





13:30 디저트의 신세계 산노미야·모토마치 거리 三宮元町通り
 산노미야에서 모토마치로 이어지는 거리는 고베의 대표적인 쇼핑 스폿이다. 유리 천장이 덮인 거리 양쪽으로 상점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옷가게와 신발가게·편의점과 카페 등 종류도 가지 각색이다. 아이쇼핑도 좋지만,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재미는 곳곳에 숨어 있는 전통 과자 전문점 찾아 내기. 빵과 케이크, 과자로 유명한 고베의 달달함을 맛볼 수 있는 스폿이 가득하다.

찾아가는 법 한류 산노미야역에서 도보 10분



고베 맛 탐방

01 돈크 Donc 고베에서 소문난 빵집. 매일 직접 공수한 유기농 재료로 빵을 굽는데, 양파빵과 카레빵이 특히 유명하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맛이 일품.

가격 양파빵 168엔, 카레빵 210엔

02 모로조프 Morojoff 일본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인 모로조프의 본점. 커스터드 푸딩이 특히 유명한데, 부드러운 질감과 캐러멜 시럽의 조화가 입에 착 감긴다.

가격 210엔

03 모리타니상점 森谷商店 원래는 신선한 고기를 파는 도매 정육점인데, 가게 한쪽에서 파는 고로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속이 꽉 들어차 있어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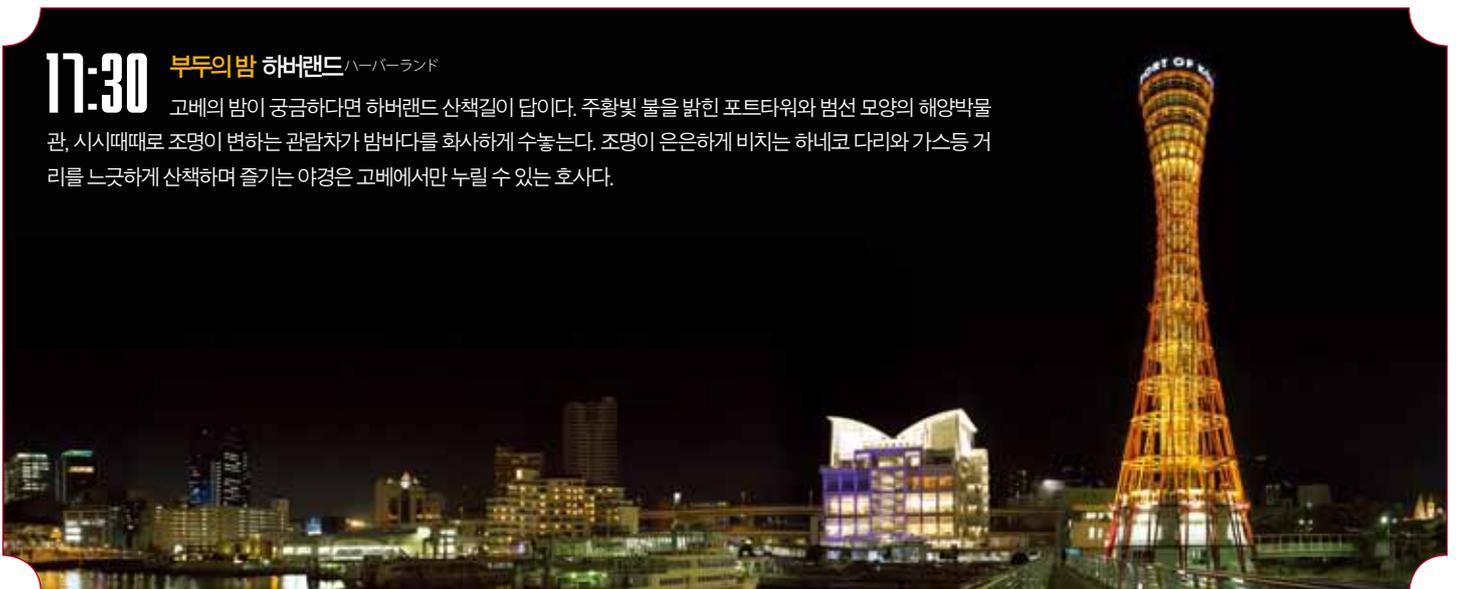
가격 햄고로케 120엔, 치즈고로케 130엔

04 유하임 Juchheim 장수를 기원하는 나이트 빵, 바움쿠헨(Baumkuchen)을 처음 개발한 과자점.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층층이 쌓은 뒤 겉면에 화이트 초콜릿을 바른 케이크인데, 일본 전역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을 만큼 인기 만점이다.

가격 100g 405엔

05 풍월당 風月堂 고베 고프르(ゴッフル)의 본가. 고프르는 와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고프르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과자다. 얇은 과자 사이에 부드러운 크림을 끼워 넣었는데, 달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가격 12개입 1박스 525엔



17:30 부두의 밤 하버랜드 ハーバーランド
 고베의 밤이 궁금하다면 하버랜드 산책길이 답이다. 주황빛 불을 밝힌 포트타워와 범선 모양의 해양박물관, 시시때때로 조명이 변하는 관람차가 밤바다를 화사하게 수놓는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하네코 다리와 가스등 거리를 느긋하게 산책하며 즐기는 야경은 고베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타이완 두 부족 이야기

그들이 사는 세상

빤한 관광지에서는 쉽사리 보기 힘든, 혹은 봤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타이완의 두 부족을 만났다. 한적한 시골 동네부터 굽이굽이 고갯길 넘은 깊은 산자락까지, 가오슝의 마오린 지역에 터를 잡은 하카족과 루카이족. 그들이 사는 세상, 참 소탈하다. 어떤 치장이나 꾸밈이 없다. 그런 삶 속에서 부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묵묵히 이어간다.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고 지켜지는 것. 타이완의 또 다른 '사람'을 마주했다.



하카족 Hakka Tribe, 客家族

다른 이름은 '객가족'. 1700년대 초 중국 북부와 중부에서 내려와 타이완에 이주한 한족의 한 갈래다. 타이완 인구의 약 13%를 구성해 제법 규모가 크다. 하카족은 중국에서 이주하던 당시 타이완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고향을 떠나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교육열과 단결력이 높아 정·재계를 주름잡는 쟁쟁한 인물들을 배출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했다. 그런 이유로 '아시아의 유대인'이란 별칭이 있다고. 하카문화 보존지역인 가오슝(Kaohsiung, 高雄)시 메이농(Meinong, 美濃)에서 그들의 전통을 엿봤다.

하카의 맛 메이농 아이찬 MeiNong I-Chan

하카족의 전통 음식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하카족이 손님에게 내놓던 뽕차(Lei Cha, 擂茶)가 첫 번째 코스. 땅콩, 쌀, 녹차가루, 검은깨, 흰깨, 쌀 튀김을 곱게 간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이때 토란으로 만든 나무 막대기로 곡식을 갈아 토란 역시 섞어 들어가는 게 특징. 막대기를 돌리는 방향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손님에게 저녁 식사도 하라는 뜻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늘은 미안하니 다음에 오라는 뜻. 다음은 본격적인 식사를 할 차례다. 연에이판(Yen-yeh Fan, 菸葉飯)은 밥 위에 돼지고기, 달걀프라이, 간장에 절인 무, 각종 채소를 얹어 푸짐하게 먹는 요리다. 하카족은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어 우리 입맛에도 다소 짹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화를 돕기 위해 매실, 레몬, 귤 등을 말린 과일을 먹으면 끝! 참고로 하카족의 전통 복장도 구경할 수 있는데, 꽃모양이 있으면 미혼, 없으면 기혼이라는 표시다.

주소 142 Chenggong Road Meinong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43 전화 886-7-681-8475 운영시간 10:00~20:30 가격 뽕차 120뉴타이완달러, 뽕차+연에이판 150뉴타이완달러



장인다운 손길

광진 종이우산 Guang Jin Sheng Zhisan, 廣進勝紙傘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하카족의 종이우산은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평범한 상품이 아니다.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으로 보는 게 맞다.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하던 먼 옛날부터 종이우산을 만들기 시작해 대대로 가업을 이어온 이곳. 빛에 따라 느낌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복을 부르는 나비 문양을 비롯해 무늬와 색상이 다채롭고, 종이 표면에 특별 제작된 약을 칠해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함을 자랑한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색깔은 변하지만 종이우산은 만들어진 지 오래 될수록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다. 가격은 600뉴타이완 달러부터 다양하다.

주소 47 Minquan Road Meinong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43 전화 886-7-681-3247 운영시간 09:00~18:00 홈페이지 <http://urhome.shop2000.com.tw>

루카이족 Rukai Tribe, 魯凱族

타이완 원주민 중 하나인 루카이족을 가오슝시 핑둥(Pingtung, 屏東)과 마오린(Maolin, 茂林)에서 만났다. 피부가 다소 검은 루카이족은 조상과 뱀을 믿는 부족으로 그들이 짓는 석판집이 유명하다. 철강이나 시멘트를 없이도 견고하게 지어내는 석판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태풍이나 지진에도 끄떡없기 때문! 한편, 루카이족에게 백합은 조금 특별하다. 여성에게는 순결, 남성에게는 용맹을 뜻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8월에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를 여는데, 달걀 돌 위에 수수떡을 부쳐 먹으며 떡의 모양으로 다음 해의 수확을 점친다.

오두막에서의 하룻밤

딘 고지 에코로지컬 게스트하우스

Deen Gorge Ecological Guest House

루카이족 가족이 오손도손 운영하는 아담한 게스트하우스. 깜깜한 밤에는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아 자연의 소리만 들려올 뿐 고요하다. 방은 침대 2개와 욕실로 구성된 오두막 형태로 역시 석판집이다. 식당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든든한 아침식사가 준비되고, 간단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주소 No.138 Maolin Li Maoli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51 전화 886-9-895-7975 홈페이지 www.5658.com.tw/6801540/

나비의 꿈 퍼플 버터플라이 밸리 Purple Butterfly Valley

순수의 자연에서 살아 숨 쉬는 나비를 만난다. 추운 겨울을 피해 마오린 지역에 찾아든 나비 수만 수천 마리가 산 곳곳에 살고 있는 것! 초콜릿 타이거(Chocolate Tiger), 더블 브랜드드 블랙 크로(Double-Branded Black Crow), 스트라이프드 블루 크로(Striped Blue Crow) 등 종류도 다양하다.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그만의 향기를 뿜고 있으며, 환상적인 컬러를 뽐내는 게 포인트. 나비를 잡아 손 위에 올려두면, 나비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죽은 척하다가 기회를 노려 날아가는 신기한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최적의 시기는 11월에서 3월 사이로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다.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하면 자원봉사로 나비 길을 안내하는 루카이족을 만날 수 있다. 루카이족 원주민 발음으로 나비를 말하는 '쓰봉봉'을 함께 외치며 나비를 관찰해보자.



주소 No. 120 Saijia Lane Saijia Village Sandimen Township Pingtung District Taiwan 전화 886-8-799-2221 홈페이지 www.maolin-nsa.gov.tw

석판 아이템

석파천경 문창공작실 Shipotianjing Wen Chuang Gongzuo Shi, 石破天驚 文創工作室

루카이족이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석판으로 목걸이, 차잔, 향초 받침대, 열쇠고리, 석판집 모형 등을 작업하는 공작실이다. 소재만 독특할 뿐 흔히 보는 소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루카이족 원주민 문화가 깃든 남다른 철학이 담겨 있다. 작업실 이름인 석파천경(石破天驚)도 돌이 깨어지니 하늘이 놀랐다는 뜻! 음과 양을 뜻하는 루카이족 문양들로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한다. 타이완 각지에서 기념품 숍이나 소품 가게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주소 5-42 Wanxing Road Pingtung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906 전화 886-9-3545-0757 홈페이지 www.wretch.cc/blog/maler3733



하늘 아래 건널목 루카이족 구름다리

한눈에 봐도 아찔하다. 30층 빌딩 높이 103m의 루카이족의 구름다리. 먼 옛날부터 산을 오가던 그들의 건널목으로 과거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다리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거나 심지어 작은 자동차를 끌고 오기도 한다. 루카이족 특유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게 특징이다.



마오린에서 맛보는 루카이족 식탁

산 달팽이와 죽순을 볶아 요리한 비평산구루오뤄 바오(Bifeng Shangu Luo Rou Bao, 避風山谷螺肉堡)



검은콩을 넣은 루카이족 스타일 닭찜 두오나슈도우팡산지(Duo Na Shu Dou Fang Shan Ji, 多納樹豆放山雞)

쫄깃한 자춧빛 쌀과 고기를 넣고 바나나잎을 말아 찐 스메이옌치나카오(Shimeiyao Kao Qi Na Gao, 石砬岩烤奇拿高)



산잎을 따서 푸딩처럼 만든 씹새름한 디저트 바터루구셴나리아오(Bate Lu Gu Xian Nailao, 巴特魯古鮮奶酪)

달 착륙기 티안랴오 문월드

Tianliao Moon World, 田寮 月世界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당시, 달은 흡사 이런 모습이었을까. 200만~600만 년 전, 바다 밑에 있던 산이 지층활동에 의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지금과 같은 바위산이 생겨났다. 모래에는 염분이 많아 식물이 살지 못하고, 비가 와도 흡수하지 못해 빗물이 이루는 물결대로 바위가 깎여 내려간다. 그렇게 쌓인 토사물이 1년에 8cm 정도. 반면 동그랗게 자리 잡은 반인공 호수는 소금기 덕분에 물이 고여도 썩지 않는다. 타이완 정부에서 관리하기 전까지는 그저 주민들이 양을 산책시키던 곳이었다. 소금 모래가 양들의 소화를 도왔기 때문. 저녁 6~10시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쳐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만점! 입구 앞 투어리스트 센터를 방문하면 가이드 투어를 안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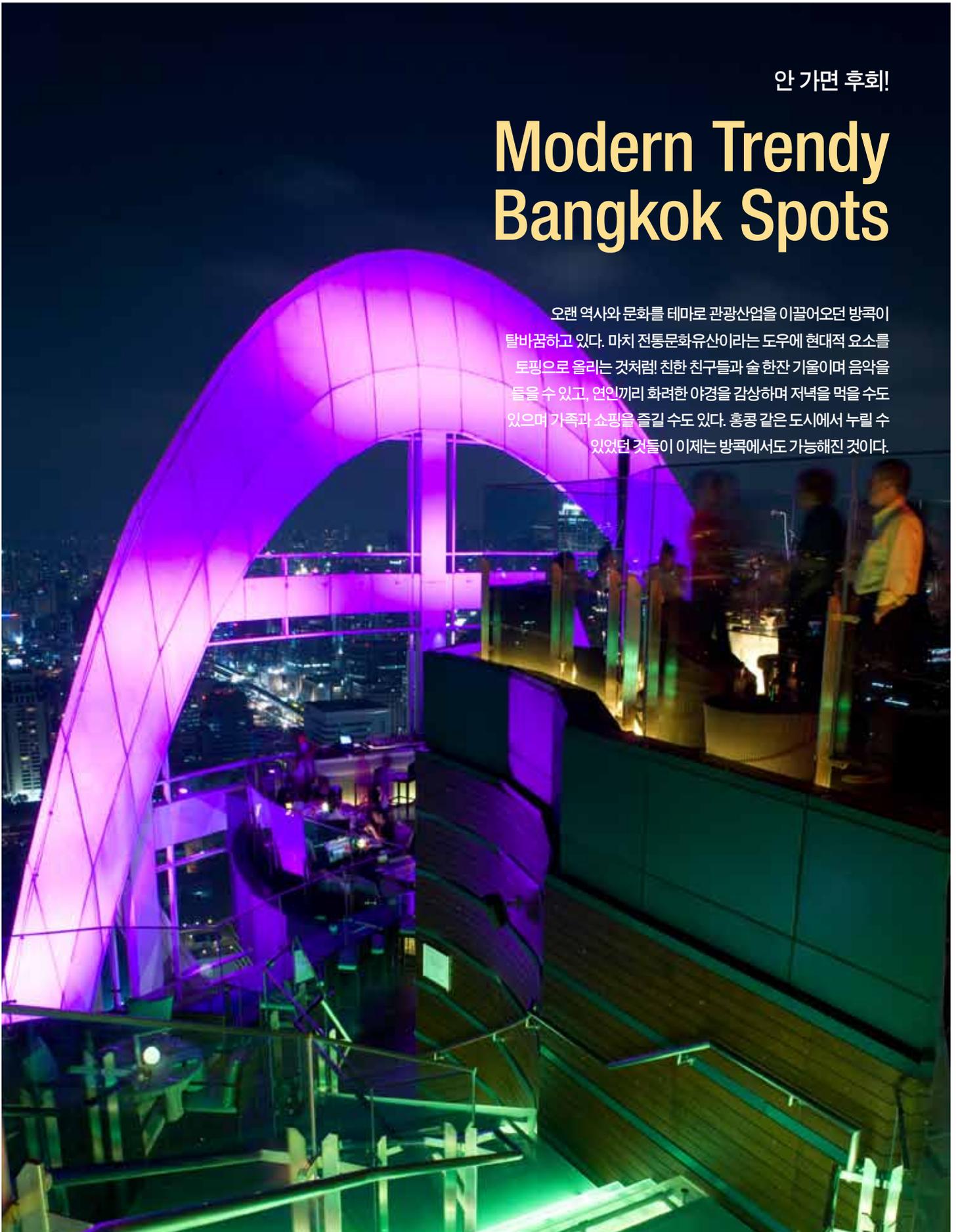
용의 비운 용두산 龍頭山

산의 모양새가 한 마리의 용처럼 보인다. 그래서 붙은 이름도 용두산. 하지만 갑자기 산 중간이 뺨 뚫렸다. 정말 용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기운이 있었던 걸까. 길이 험했던 옛날, 용두산의 머리 지점에서 유독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할 당시, 그 피해를 줄이고자 머리와 몸 부분의 연결고리를 폭파해 자른 것!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인명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마오린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마오린 린다오(Maolin Lindao, 茂林林道)'를 따라가다보면 용두산 전경이 보인다.

안 가면 후회!

Modern Trendy Bangkok Spots

오랜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이끌어오던 방콕이 탈바꿈하고 있다. 마치 전통문화유산이라는 도우에 현대적 요소를 토핑으로 올리는 것처럼 친한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연인끼리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저녁을 먹을 수도 있으며 가족과 쇼핑을 즐길 수도 있다. 홍콩 같은 도시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방콕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NIGHT LIFE in Bangkok

방콕은 밤의 도시다. 더운 날씨 탓에 낮보다는 밤에 사람들의 활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곳저곳 어두운 밤길에 불을 밝힌 업소들 때문인지, '방콕의 밤'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퇴폐적인 성인 관광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누구나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방콕만의 나이트 라이프 플레이스가 방콕 곳곳에 있다.



옥상 노천 바 Rooftop Bar

홍콩만큼이나 고층 빌딩이 많아진 방콕에는 멋진 바가 많다. 하루 중 일 이곳저곳 돌아다녔다면, 저녁에는 고층 건물 옥상에 위치한 루프톱 바에 들러 야경을 즐기며 칵테일 한잔을 음미해보자. 방콕 루프톱 바의 최고봉은 단연 르부아 호텔의 '시로코(Sirocco)'와 반얀트리 호텔의 '버티고 앤드 문 바(Vertigo and Moon Bar, 버티고는 레스토랑이고, 문 바는 칵테일 바)'다. 이 두 루프톱 바는 방콕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방콕에 들르는 사람들은 꼭 한 번 찾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맨 위층에 내려 몇 계단 올라가면 옥상 위에 펼쳐진 멋진 다이닝 레스토랑과 바를 만나게 된다. 별도의 천장과 유리창 없이 오로지 유리 난간으로만 이루어진, 그야말로 '옥상 노천 바'라고 할 수 있다. 난간에 기대어 발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

려다보노라면 아찔하면서도 황홀한 느낌이 든다. 게다가 드레스 코드까지 정해져 있어 마치 고급 파티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간의 호사스러움마저 느낄 수 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보아온 말쑥한 정장이나 원피스 드레스를 상상하겠지만, 단정한 캐주얼 차림도 문제없다. 단, 반바지를 입거나 샌들을 신고 있다든지, 민소매 티를 입고 있다거나 백팩을 메고 있다면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버티고 앤드 문 바는 구두를 빌려주거나 백팩을 맡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지만, 시로코에는 그러한 서비스가 없으니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다. 아쉽게도 비가 와서 문을 닫았거나, 자리가 없어 루프톱 바를 가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바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수쿰빗 거리에 있는 '롱테이블'은 칼럼 호텔(Column Bangkok) 25층에 위치한 모던 바다. 외국인도 많지만, 잘생기고 아름다운 젊은 태국인 남녀도 꽤 많은 곳. 이름 그대로 홀 중간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다. 25층이라 그런지 이 테이블의 길이도 25m라고 한다. 긴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창가나 야외에서 칵테일을 마실 수도 있다. 진정한 의미의 루프톱 바는 아니더라도, 25층에서 보는 야경은 꽤 훌륭하다. 그뿐만 아니라 야외 바 한편에는 수영장도 있어 더위에 지친 여행자들을 시원하게 해준다.

BKK Rooftop Bar List

시로코 Sirocco



찾아가는 법 BTS 시판탁신 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소 63rd Floor, Lebua Hotel at State Tower, 1055 Silom Road 전화 02-624-9555 운영시간 18:00~01:00 홈페이지 www.lebua.com/sirocco

버티고 앤드 문 바 Vertigo and Moon Bar



찾아가는 법 MRT 롬피니 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소 61st Floor, Banyan Tree Bangkok, 21/100 South Sathon Road 전화 02-679-1200 운영시간 Vertigo(레스토랑) 18:00~23:00 Moon Bar(바) 17:00~01:00 홈페이지 www.banyantree.com/en/bangkok/

롱테이블 Long Table



찾아가는 법 BTS 아숙 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소 25th Floor, Column Tower, Sukhumvit Soi 16, Sukhumvit Road 전화 02-302-2557-9 운영시간 17:00~02:00 홈페이지 www.longtablebangkok.com

SHOPPING in the City

'쇼핑 천국'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홍콩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건물 어느 곳으로 나서든 몇 걸음만 가면 쇼핑몰이 등장하는 동네가 바로 홍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적할 만한 도시가 있으니, 바로 Bangkok이다.



역사를 품고 있는 아시아티크 Asiaticque

패키지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방콕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시암(Siam)'에 있는 쇼핑몰에 들러 쇼핑을 해보았을 것이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쇼핑몰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곳이 생겨났다. 시암 파라곤(Siam Paragon), 시암 센터(Siam Center), 시암 스퀘어(Siam Square)는 물론이고, 센트럴 월드(Central World)와 우리나라 동대문 쇼핑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MBK도 있다. 대형 쇼핑센터에 익숙함을 느꼈다면, 방콕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티크를 추천한다. 백화점보다는 아케이드 형식의 구조를 가진 아시아티크는 방콕의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500여 개의 상점이 백화점 같은 중앙 본부와 직접적인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시장 형태의 유통 방식을 고수하지만, 잘 정리된 유럽풍 아케이드로 인해 시장보다는 훨씬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게다가 차오프랴야 강을 끼고 있어 천천히 쇼핑을 하고 나서 밤에 강가의 시원한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다. 아시아티크는 총 네 구역으로 나뉜다. 1000여 개의 조그마한 숲이 밀집한 차런크롱 구역(Chareonkrung District), 디자이너들의 공예품을 볼 수 있는 팩토리 구역(Factory District),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타운 스퀘어 구역(Town Square District), 차오프랴야 강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저녁노을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구역(Waterfront District)이다. 단순한 쇼핑몰과는 달리 아시아티크는 나름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1900년대 초, 서양 열강이 동남아 여러 곳에 식민지를 세울 무렵, 태국은 식민지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때 태국은 주요 생산품인 티크나무를 수출하기 위해 차오프랴야강에 무역항을 개설했는데, 그 무역항이 있던 자리가 바로 현재의 아시아티크다. 실제로, 아시아티크의 한구석에는 과거에 무역항으로 썼던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찾아가는 법 BTS 시판탄역 2번 출구에서 사톤피어로 가서 셔틀버스 탑승 주소 2194 Chareonkrung Soi 74-76 전화 02-108-4488 운영시간 17:00~24:00 홈페이지 www.thaiasiaticque.com

BKK Hot Shopping Areas

시암 파라곤 Siam Paragon



찾아가는 법 BTS 시암역 3번 출구와 연결 주소 991 Siam Paragon Shopping Center, Rama 1 Road 전화 02-610-8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iamparagon.co.th

시암 스퀘어 Siam Square



찾아가는 법 BTS 시암역 2,4,6번 출구 주소 Siam Square, Rama, 1 Road 운영시간 11:00~22:00 사이에 문을 여는 상점이 많다. 서울의 명동과 대학로를 합쳐놓은 듯한 방콕 최고의 패션 거리.

시암 센터 Siam Center



찾아가는 법 BTS 시암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소 979 Rama 1 Road 전화 02-658-1491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siamcenter.co.th



가장 방콕다운 재래시장

비록 세련된 모습을 갖추진 못했더라도, 밤에는 한 번쯤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진짜 방콕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방콕다운 시장을 가보길 희망한다면, ‘뽕뽕(Patpong)’ 시장을 둘러본다. 뽕뽕은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스트립 바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각종 이미테이션과 싸구려 공산품을 파는 재래시장으로도 유명하다. 코앞에 스트립 바가 있지만 대부분 입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 흥정을 하는 서양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뽕뽕 시장 일대만큼 성인 중심적이지 않은 곳을 찾는다면 자투리 시장을 가보는 것도 좋다. 옷뿐만 꽃시장(Yodpiman Flower Market)은 여행자들의 눈에 띄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태국을 대표하는 오키드 꽃을 비롯해, 각종 행사에 쓰이는 아름다운 화환들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꽃을 파는 시장이다보니 달콤한 과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방콕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장이 아닐까 싶다.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자라면 만나절을 할애해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Damneon Saduak Floating Market)과, 국내 모 통신사 광고에 나온 철길시장(Railway Market, 흔히 ‘위험한 시장’이라고도 한다)에 가보길 권한다. 가장 태국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계인들과 춤을

세계에 몇 안 되는 메가시티답게 방콕의 클럽 또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방콕에 대해 열심히 인터넷을 뒤적거려보았거나, 가이드북을 탐독한 젊은이들이라면, 큐바(Q Bar), 베드서퍼 클럽(Bed Supper Club), 뮤즈(Muse), 루트 66(Route 66)라는 이름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어느 클럽을 가든, 태국 현지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만큼 태국의 클럽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소다. 사람들로 뻘뻘한 우리나라 클럽과 견주어 방콕의 클럽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춤추는 사람 또한 별로 없어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사람이 등성등성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접촉(?) 없이 춤출 수 있고, 사람들과 가볍게 한잔하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더군다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춤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춤에 집중하기에 더없이 좋다. 베드서퍼 클럽의 경우, 입장권을 끊고 두 개의 스테이지에 나누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스테이지이지만, 왼쪽은 폭신한 베드가 놓여 있는 베드 바다. 스테이지는 협소하지만, 각테일 한잔을 시켜 비스듬히 누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엔 최고의 장소. 명불허전 방콕 최고의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클럽은 대부분 수쿰빗 거리의 소이나나(Soi Nana)와 알시예이(RCA)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베드서퍼 클럽 찾아가는 법 BTS 나나 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주소 26 Sukhumvit Soi 11 전화 02-651-3537 운영시간 19:30-01:00 홈페이지 www.bedsupperclub.com

BKK Street Markets List

뽕뽕 야시장 Patpong Night Market



찾아가는 법 BTS 살라당 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소 Soi Patpong, Silom Road 운영시간 18:00부터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다.

철길시장과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



방콕 외곽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주로 방콕 현지 여행자 레터박스 등을 통해 온라인 예약 후, 패키지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카오산 로드나 수쿰빗 거리 일대에서 출발해 점심 식사 전후에 방콕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심에서 즐기는 진정한 휴양

Real Vacation in the City

햇살 내리쬐는 해변에서 마시는 시원한 칵테일 한잔, 연이어 즐기는 해양 레포츠와 전문 테라피스트의 스파 서비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휴가는 일에 파묻혀 사는 현대인이 늘 꿈꾸는 로망이다. 하지만 인적 드문 휴양지를 찾아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일 터. 그래서 준비했다. 가까운 곳에서도 꿈같은 휴식을 선사해줄 도심 속 리조트 열전.



도시와 만난 리조트, 그 변화의 바람

여행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때로는 식도락이, 때로는 유명 관광지 순회가 여행의 목적이 된다. 어떤 이들은 한적하고 조용한 소도시에서 며칠이고 머물며 사색을 즐긴다. 이때, 호텔이나 리조트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실상 잠을 자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저 자는 곳'에 불과했던 호텔과 리조트가 여행의 온전한 목적지가 되고 있는 것. 다양한 쉴 거리와 즐길 거리로 무장하고

한곳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종합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어서다. 특히, 도심 속 리조트나 호텔의 번모가 눈에 띈다. 단순히 숙박 중심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달콤한 휴가를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의 완벽한 휴양처로 옷을 갈아입은 도심 속 리조트와 호텔들. 그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TPO 회원도시들의 도심 속 휴양처로 여행을 떠나보자.



부산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휴양 파크하얏트 부산

한국의 두 번째 대도시, 부산. 시골벽적인 도시이지만 부산에서 느긋하고 안락한 휴가를 즐기는 일도 이제는 어렵지 않다. 지난 2월, 새로운 도심 속 휴양지로 태어난 파크하얏트 부산이 있어서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수영만 요트경주장과 평안대교, 넓은 백사장을 지닌 해운대 바다가 환눈에 들어오는 파크하얏트 부산. '투숙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 이곳의 모토다.

파크하얏트 호텔 내부 디자인은 '휴식'이라는 콘셉트에 맞췄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겠다.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전면 유리창이 가장 큰 특징. 모든 투숙객이 해운대 바다의 파도와 계절 따라 피어난 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룸 내부는 프랑스산 참나무 등의 다양한 원목과 화강암 같은 자연 소재로 꾸며 더욱 안락하다. 국내 특급 호텔과 비교해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객실과 레인 샤워 시설도 장점이다. 욕실에 설치된 23인치 빌트인 TV와 고급 천연 향수 브랜드인 '르 라보'의 어메니티 키트 역시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3층부터 5층까지, 총 3개 층에 위치한 '루미 스파 & 피트니스'는 파크하얏트 부산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이 공간 역시 전면 유리창을 적용해 햇살과 바람, 바다와 자연을 만끽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20m 너비의 고급 실내 수영장도 갖춰져 있다. 해변 수영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편안하게 수영을 즐기길 원하는 투숙객들을 위해서다. 피트니스와 수영으로 한껏 운동을 즐겼다면 2개의 커풀 룸을 포함, 모두 7개의 트리트먼트 룸을 갖추고 있는 스파를 찾아보자. 최고급 스파 어메니티인 '커스틴 플로리안'을 사용한 전문 테라피스트들의 스파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진정한 도심 속 휴양의 즐거움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마닐라의 대표 휴양지 리조트 월드 마닐라

'리조트 월드 마닐라'는 최근 마닐라의 대표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마닐라의 메트로 시티 심장부 중에서도 최적의 요충지로 꼽히는 뉴포트시티에 자리 잡은 이 리조트 단지는 필리핀에서는 최초로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복합 리조트 시설이다. 다양한 콘셉트의 호텔과 휴식처, 즐길 거리 등을 마련해놓은 덕에 2010년 11월 그랜드 오픈한 이래 명실상부한 필리핀의 대표적 관광 명소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가장 큰 매력은 최고급 럭셔리 호텔부터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버짓 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숙박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의 호텔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객실마다 개인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럭셔리 호텔인 맥심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족 여행객을 타깃으로 하는 레밍턴 호텔이 유명하다.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설은 바로 야외 수영장이다. 굳이 밖으로 나가 해변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야외 수영장이 호텔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특히, 맥심 호텔과 메리어트 호텔의 야외 선베드에서 즐기는 일광욕은 도심 한가운데서 여유와 낭만을 만끽하게 해준다. 이밖에도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뉴포트 몰 센터의 스테이지나 서커스 등의 공연이 열리는 초대형 뉴포트 공연장 등 공연 시설, 뉴포트 쇼핑몰, 카지노,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가 마닐라의 대표적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지닌 셈이다.



동양의미를 강조한 상하이의 휴식처 포시즌스 상하이

빌딩 숲을 이룬 상하이는 언제나 분주한 도시다. 이곳에 위치한 포시즌스 상하이는 모두 42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특급 호텔 중에서도 꽤 큰 규모다. 하지만 이 호텔이 도심 속 리조트로서 지닌 매력은 바로 큰 규모와 달리 도시의 분주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상하이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은 비즈니스 여행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포시즌스는 철저히 휴양과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인테리어에 과도하지 않은 컬러를 활용했다. 일상이 주는 물리적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포시즌스 브랜드 고유의 컬러는 유지하면서도 상하이의 동양적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공간의 여백을 활용한 테커레이션이나 객실에 놓인 작은 향초, 전통차의 향을 담은 자기, 산수화를 담은 장식장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우아한 선과 신비로운 여백의미를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차별하면서도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풍기는 인테리어는 포시즌스 상하이를 휴식처로 선택한 사람들이 인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젠 스타일로 디자인된 모던한 인테리어의 더 스파는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할 또 하나의 장치다. 모두 9개의 트리트먼트 룸을 갖추고 있는 더 스파에는 1930년대 중국의 고급 살롱을 연상시키는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 빈티지한 가죽 의자와 은은한 조명은 더 스파만의 아이덴티티다. 특히, 중국 전통 침술을 경험할 수 있는 메디컬 클리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호치민의 분주함을 잇다 파크하얏트 사이공

수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하루 종일 북적거리는 도시, 호치민. 이 도시의 중심가인 람손 광장에서는 이곳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우아하고 세련된 도심 속 휴양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파크하얏트 사이공이다. 호텔 안으로 들어서면 도시가 쏟아내는 소음으로 가득한 바깥 풍경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5성급 호텔인 파크하얏트 사이공의 가장 큰 매력은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에서 도심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로비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센터, 24시간 컨시어지 데스크와 서비스는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20m 너비의 야외 수영장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테라피 마사지 및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안 스파에서는 번잡한 일상에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양한 레시피를 갖춘 레스토랑도 이 호텔의 자랑거리. 베트남 요리와 웨스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스퀘어 원과 이탤리언 요리와

와인을 제공하는 오페라, 가벼운 식사와 함께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파크 라운지가 대표적이다. 또, 현대적인 베트남풍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람손 바에서는 빈티지 와인과 시그니처 칵테일 등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244개로 구성된 객실 모두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회적인 인테리어와 레인 샤워를 갖춘 대리석 욕실이 투숙객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호치민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파크하얏트 사이공을 도심 속 훌륭한 휴양처로 만들어준다. 호텔과 가까운 곳에 비즈니스 중심가는 물론 고급 쇼핑가와 유흥가가 있어서다. 쉬기만 하는 휴식이 지루할 때, 언제나 호텔 밖으로 나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 게다가 유명 문화·역사 유적지와도 가까워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다. 탄손나트 국제공항과 불과 7km 떨어져 있다는 점 또한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젊은 감각의 방콕을 만나다 드림 방콕

방콕은 태국의 경제,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방콕에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그야말로 즐비하다. 그 많은 호텔 중에서도 드림 방콕이 도심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드림 방콕 호텔은 일반적인 호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트렌디한 감각의 조명과 인테리어로 젊은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도심의 휴식처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 조명 덕택이다. 여행이나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사람이 가장 쾌적한 상태로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알려진 '블루 테라피 라이트'를 객실 인테리어에 도입한 것이다. 특히,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침대 아래에서 은은한 조명이 나오게 만든 것이 눈에 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드림 방콕 호텔의 룸 타입은 모두 6개로, 총 195개의 룸이 2개의 건물에 나뉘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배달되는 신문과 DVD 플레이어, 웰컴 프루트, 무료 인터넷 등은 모두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 장치. 또, 욕실에는 레인 샤워 부스를 설치해 편리함을 높였다. 또, 호텔을 벗어나지 않아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1층에 위치한 루프 톱 수영장을 들 수 있다. 색색의 조명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수영장에는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직원들이 상주한다. 특히 해가 진 후의 풍광이 아름다워서 주말 저녁이면 다양한 파티가 열린다. 오픈 당시 방콕의 셀러브리티가 모이는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았던 플라바도 놓칠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운이 좋다면 유명 DJ들이 진행하는 테마 파티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콕의 비즈니스와 쇼핑,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 중 하나인 수쿰빗에 위치해 방콕 시내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리조트, 여행을 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콘셉트의 도심 속 호텔과 리조트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남아나 지중해의 어느 한적한 섬에 있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아니라도 여행의 목적이 충분히 될 정도다. 즐길 거리의 종류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간단한 웰스 프로그램이나 스파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분, 호텔의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하고, 리조트 전용 해변에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호텔 정원에서 럭셔리한 캠핑을 즐기는 글램핑도 새롭게 떠오른 여행 트렌드다. 이제 꿈같은 휴가를 위해 먼 곳으로 떠나는 수고는 멈추고,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지루한 일상에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할 호텔과 리조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울산

울산, 중국 투자자 초청 강동권 투자 설명회 개최

울산광역시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에 걸쳐 울산시청 및 강동권 개발 현장 일대에서 중국 투자자 초청 강동권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제주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투자 설명회는 강동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동권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는 중국 북경화란국제투자관리유한회사의 장진 대표이사(국적 미국)를 비롯해, 모두 7명의 중국인 투자자가 초청되었다. 울산을 찾은 방문단은 특히 울산의 산업 규모와 외국인 투자 현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강동권 개발 사업은 울산 해안가를 동남권의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구 강동동 일원에 고급 주거지와 리조트, 워터파크, 온천 등을 만드는 대형 관광 개발 사업인 이 사업은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대전

2013년 상반기 TPO 한국회원도시 지역회의 개최

2013년 상반기 TPO 한국회원도시 지역회의가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대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지역회의에는 한국의 18개 회원도시(부산, 대전, 광주, 군산, 남해, 대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부여, 안동,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창원, 통영, 포항, 하동)가 참여했다.

2월 2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2012년의 활동 보고를 비롯해 2013년 사업 계획 발표, 제6회 TPO 총회 및 TPO 관광교역전 프로그램 안내가 진행됐다. 또,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박봉규 교수의 'TPO 회원도시 통계조사 및 관리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대전광역시의 관광자원 시찰이 이루어졌다. 우선 제6회 TPO 총회의 개최 장소인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각 프로그램이 진행될 장소를 둘러보았으며, 과학 도시로 유명한 대전광역시 연구단지 내의 국가핵융합연구소도 방문했다.

한편, 하반기 전체회원도시 지역회의는 오는 9월 제6회 TPO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열린 전망이다.



중국, 마카오

22회 TPO 운영위원회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

제22회 TPO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광저우(중국)와 산야(중국), 부산(한국), 대전(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후쿠오(일본)에서 모두 1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4월 8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케오시(일본)와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의 신규 회원 가입이 승인되었고, 2013년 추가 예산 편성, 사무국 감사 계획, 차기 회장단 구성 준비, TPO Friendship Evnet 지정 등이 승인되었다. 차기 23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익산·군산시 공동 관광 마케팅 전개

전북 지역의 대표 관광도시인 전주와 익산, 군산시가 일본 규슈 지역을 주요 공략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고 공동 관광 마케팅에 나섰다. 료칸 여행의 중심지인 다케오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마케팅을 통해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 도시는 TPO(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4일 일본 규슈 지역을 찾아 전주·익산·군산 공동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규슈 지역의 수학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와 학교·학부모 관계자,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PO는 이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일본 규슈 지역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팸투어와 관광 홍보전을 개최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전주의 전통문화와 음식, 익산의 백제 문화와 보석, 군산의 근대 문화와 새만금 상품을 체험했다.

TPO 한국회원도시, 중국 공략 나서

TPO의 한국회원도시인 부산과 김해, 안동, 군산, 전주시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5회 상하이 관광전에 참가, 중국 발전의 심장인 상하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TPO 해외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3대 관광전의 하나로 5만여 명의 일반 참가자가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회원도시들은 행사 기간 중 부스를 운영했으며, 5월 9일에는 TPO 회원도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상하이 여유국 부국장을 비롯해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30개의 중국 대표 여행사 상품기획 담당자들과 대표, 언론사 6곳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강국 상하이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주(駐)상하이 한인회장, 한국문화원장,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장, 5개 도시 대표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TPO와 5개 도시 대표, 중국 최대 여행사인 CITS(국여집단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TPO 회원도시 여행 상품 개발과 관광 교류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5개 도시를 방문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참석한 여행사의 담당자들을 “그동안 서울과 제주에만 치우쳐 있던 한국 여행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다”고 전했다. 또,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측의 대표단은 이번 행사를 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해외 공관, TPO가 서로 협력해 참여한, 효율적이고도 의미 있는 관광 마케팅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06 June 2013

Festival Calendar

한국, 부산
5월 31일 ~ 6월 4일

부산국제무용제

장소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바다와 무용을 결합한 문화 축제, 부산국제무용제가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춤!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에는 10개국에서 44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60여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 기간에는 개막식과 공식 초청작 공연,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등의 공식 행사와 열린 춤 무대, 춤 아카데미, 시민과 함께하는 즉흥 댄스 등 시민 참여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난
5월 12일 ~ 6월 30일

모래 & 소금 조각 축제

장소 시구 소금산, 타이완 소금 박물관, 마사고 해변

모래와 소금으로 만드는 조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타이난으로 떠나보자. 전 세계에서 초청된 아티스트들이 두 재료를 활용해 만든 조각을 전시하는 축제가 타이난에서 열린다.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31개의 조각상이 전시될 예정.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관람객들에게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할 라이트-레이저쇼가 펼쳐진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워크 투게더

장소 이르쿠츠크 역사박물관 일대

이르쿠츠크에서 열리는 가장 신 나는 이벤트 중 하나인 '워크 투게더' 카니발이 지난 201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역사박물관에서 시작, 차르 알렉산더 3세 동상까지 행진하는 이 카니발에서는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의상을 갖춰 입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화 속 영웅이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각국의 전통 의상 등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축제를 즐기다보면 하루가 짧을 정도다.



한국, 대구

6월 5일 ~ 9일

대구 꽃 박람회

장소 대구 엑스코 1층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꽃밭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제4회 대구 꽃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Healing With Flower'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가드닝, 꽃동산, 야생화, 수생식물, 플라워 디자인, 토피어리, 다육식물 등의 다양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또, 대구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와 원예 체험 등 알찬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국, 전주

6월 7일 ~ 10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소 전주 일대

한국 민속음악의 본고장인 전주에서 전주대사습놀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유능한 국악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판소리와 시조, 명고수, 민요, 기악, 무용, 가야금병창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명장을 가리는 본선 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6월 18일 ~ 22일

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축제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러 자매 도시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축제가 개최되는 것. 올해는 샌디에이고, 아키타, 니가타, 부산, 인천, 동해, 코타키나발루, 호치민, 상하이 등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청소년들이 모여 건강과 향구도시, 패션, 청소년의 삶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07,08 July, August 2013



한국, 춘천
6월 29일 ~ 7월 7일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장소 춘천역 앞

춘천의 대표 음식, 막국수와 닭갈비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7월 초 춘천을 찾아보자. '낭만으로 만나는 막국수, 닭갈비'라는 주제로 먹거리 축제가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100인분의 막국수, 닭갈비 무료 시식 행사, 막국수 빨리 먹기 대회, 막국수 만들기 체험, 춘천향토음식 전국 요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또, 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낭만 불꽃 쇼는 춘천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기타큐슈
7월 하순
와카마쓰 항구 축제
장소 와카마쓰 항 일대

기타큐슈의 7월은 끊임없이 열리는 축제로 들썩거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축제는 와카마쓰 항구 축제. 배 모양을 한 축제 가마가 술통 모양으로 만든 북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신명 나게 행진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2000여 명의 사람이 횃불을 들고 인접한 다카토 산을 오른다. 산 정상상을 향해 뺨곡하게 이어지는 횃불 풍경이 장관을 연출한다.



한국, 부산
8월 1일 ~ 9일
부산 바다 축제
장소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해수욕장 일대

1996년 처음 개최된 부산 바다 축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바다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해변무용제, 해상 퍼레이드 및 길놀이, 예술 공연, 해양 스포츠 대회 등 구성이 무척 다양하다. 또 시민 노래 자랑 대회와 해변 경로 콘잔치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는 '축제의 바다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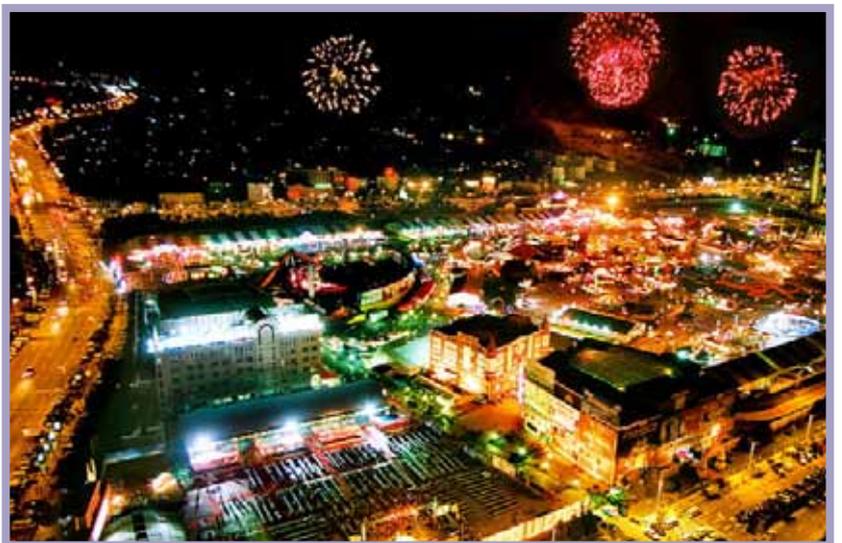


일본, 후쿠오카
7월 1일 ~ 15일
하카타 기온 아마카사 축제
장소 구시다 신사 일원

하카타의 여름은 아마카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770년 전통을 지닌 후쿠오카의 대표 축제, 하카타 기온 아마카사가 매년 7월 초 화려한 막을 올리기 때문. 전통 의상인 혼도시를 입은 남성들이 신에게 보여줄 대형 인형 장식품을 가마에 올린 뒤 이를 메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축제의 메인 이벤트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하카타 곳곳에서 화려로운 장식 마차를 볼 수 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안
7월 12일 ~ 13일
마사고 음악 축제
장소 마사고 해변

대만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로 유명한 마사고 해변. 7월이 되면 이곳은 낭만적인 음악 소리로 가득 찬다. 대만의 뮤지션들이 해변 곳곳에서 라이브 무대를 열고 공연을 펼치는 것. 음악 장르는 무척 다양하며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부드러운 모래와 음악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잠재력을 지닌 학생 밴드들이 참가해 자작곡을 선보는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중국, 칭다오 8월 10일 ~ 25일
칭다오 맥주 축제
장소 칭다오 비어 패션 스퀘어

더운 여름밤, 맛있는 맥주 한잔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 1991년 처음 시작되어 중국은 물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로 성장한 칭다오 맥주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다. 매년 50개 이상의 세계 유명 맥주 회사들이 참가하는 이 축제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맥주를 맛있는 안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축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시내 모든 숙소가 동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



TPO의 중추

주환명 TPO 사무국 사무총장

저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도시들. 이들 도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TPO다. 어느새 <Tourism Scope>도 26호 발행. 그동안 많은 회원도시의 관계자들이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번에는 TPO 사무국 차례이다. 회원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주환명 사무총장이 TPO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회원 전체를 담당하는 TPO 사무국의 역할 중, 달라진 것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TPO 사무국은 우리 기구의 유일한 상설 조직입니다. 기구가 항상 살아 있게 만드는, 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과 같은 조직이지요. TPO 사무국은 현재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기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기구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활동 홍보와 회원 도시 지원 업무도 사무국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TPO가 출범한 이후, 회원도시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나요? 또,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 궁금한데요.

TPO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요. 사무국은 회원도시에 다양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회원도시 간 협력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협력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TPO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TPO 사무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올해와 내년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일 외에도 다
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
습니다. 회원도시 관계
자들이 관광산업을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TPO 투어리즘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원천 시장에서 회원도시 공동 마케팅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투어리즘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는데, 회원도시 학생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부산에서 좀 더 큰 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 TPO의 대표적 이벤트로 발돋움시킬 예정입니다.

TPO의 회원도시를 늘릴
계획이 있나요?

2013년 5월 현재 TPO의 회원都市는 모두 71곳인데,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TPO는 열린 조직입니다. 우리 회원도시와 함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도시라면 어디라도 환영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 회원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도시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관광 기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Tourism Scope>의 활성화
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Tourism Scope>는 공식적인 기관지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회원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영어로만 출간되던 인쇄본

을 전자 파일 형태로 바꾸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4개 언어로 출간하는 것은 그 때문이지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전자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마련해 제한적으로라도 인쇄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대전에서 제6회 TPO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제6회 TPO 총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대전시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사무국과 대전시 관계자들이 손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TPO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거 활동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TPO가 출범한 이래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활동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시장에서의 관광지 마케팅 활동을 체계화했다는 점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관광홍보 설명회, 관광전 참가, 팸투어, 상품개발 지원, 고객 홍보 지원, 관광객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나의 체계적인 흐름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잘 관리하는 중입니다.

회원도시 관계자들에게 사무국의
운영과 발전 계획을 밝히신다면,

TPO 사무국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사무국의 직원들은 어느

회원도시 정부에도 속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구의 성장만큼 사무국이 성장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게 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